

ISSN 1599-7863

# 박물관사람들

2021년 봄 • 72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거돈사 원공국사 승묘탑 부분

## 2021년 봄 ■ 72호

Contents

기획/박물관 정원	뭣이 즐힌다	4
	보제존자 나옹	8
	별나서 더 좋아	12
문화칼럼	청두와 또 하나의 '실크로드' 이야기	16
회원마당	금자동아 은자동아	21
답사기	어른대는 좋은 날의 운수	24
전시실 산책	한 겨울 지나	28
박물관 소식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32
숨은 전시	거리두기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 뭣이 중헌디

부도浮屠라는 명칭으로 불려 왔던 승탑은 스님의 무덤을 상징하여 유골이나 사리를 모셔두는 것을 말하는데,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석가모니의 제자 사리불이 석가모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자 석가모니의 허락을 받아 승탑의 시초인 사리불의 묘탑을 만든 게 그 시초라고 한다. 그 후 불교가 융성하고 전파되면서 인도는 물론 중국에서도 고승들의 묘탑인 승탑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수용된 시기는 4세기 후반이지만 4, 5세기까지는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승탑이 없다.『삼국유사』에 신라의 원광과 혜숙, 백제의 혜현 등의 승탑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7세기 중엽 삼국시대에 승탑이 조성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조성된 승탑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어 어떤 모양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승탑은 통일신라 하대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선종 불교가 널리 전파되던 시기와 관련이 있다. 9세기 무렵 당나라에서 들어온 선종이 크게 세력을 떨치면서 전국의 구산선문에서 너도나도 승탑을 조성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모든 스님들이 아니라 상당한 지위와 덕망을 갖춘 고승에 한하여 왕의 허락을 받아 승탑이 조성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승탑은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의 도의선사탑으로, 석탑의 기단부를 그대로 답습하고 팔각원당형의 탑신을 올렸다. 독특한 구조로 탑의 형식에서 팔각원당형으로 옮아가는 과도기적 형태이다. 도의선사탑을 시원으로 하는 우리나라 승탑은 흥법사의 염거화상탑을 기점으로 승탑 양식의 전형을 갖추게 된다. 염거화상탑은 팔각형의 평면을 기본으로 삼아 기단부는 물론이고 그 위에 올리는 탑신 꼴대와 탑신부, 옥개석, 상륜부까지 모두 팔각형이다. 이러한 양식을 팔각원당형이라 하며 우리나라 승탑의 기본형이다.

염거화상탑을 본 첫인상은 담박하다. 단번에 눈길을 확 잡아끄는 강렬함보다 그윽한 정취가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아담하면서도 수수한 모습에 부산스럽던 의욕마저 차분히 잣아든다. 우리나라 승탑의 전형이 이 승탑에서 비롯되었다는 어마어마한 내력을 품고서도 전혀 내색 않고 담담한 모습으로 태연하다. 강원도 원주 흥법사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승탑 중 조성 연대가 확실한 가장 오래된 탑이다. 탑골 공원을 거쳐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뜰에 머물고 있다. 염거화상은 우리나라에 선불교를 개창한 도의선사의 제자로 선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던 당시 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이 승탑은 팔각형의 평면을 기본으로 하며 기단 전체는 불상의 연화대좌와 같은 모양이다. 하대석에는 각기 다른 자세의 사자가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는데, 사자는 불법을 수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이처럼 하대석에 사자를 새긴 것은 불법을 수호하듯 고승의 유골과 사리를 보호하려는 뜻을 담고 있는 듯하다. 중대석에는 안상을 새기고 그 안에 향로와 꽃을 조각했는데 이 또한 돌아가신 스승님께 최고의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인 듯하다. 상대석은 연꽃잎을 두 줄로 돌려 우아함을 살리고 그 위에 탑산 받침대를 둑우어 연화좌 위에 앉아 있는 천부상을 두었다.

탑신 역시 팔각형의 평면으로 모서리에 기둥을 새기고 자물쇠와 문고리가 있는 문을 새겨 사천왕상과 번갈아 배치하였다. 이 승탑은 탑신에 부조상이 등장하는 첫 예가 되며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이 승탑을 따라 대부분의 탑신에 사천왕상이 등장한다. 사천왕상은 고승의 유골과 사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고승의 영혼이 극락왕생할 때 수호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문양을 조각해 놓은 의도가 참으로 단순 명료하면서 강렬하게 전달된다. 누구라도 단박에 그 뜻을 알아차리지 않을까?



도의선사탑



염거화상탑

옥개석은 기왓골을 깊게 파고 기와 끝마다 암막새와 수막새를 새겨 놓았으며 처마 밑에는 서까래까지 표현해 실제 목조 건축물의 지붕을 보고 있는 듯하다.

탑을 옮길 때 금동탑지가 발견되어 통일신라 문성왕 6년(844)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승탑의 양식은 우리나라 승탑의 전형적인 양식이 되어 조선시대까지 계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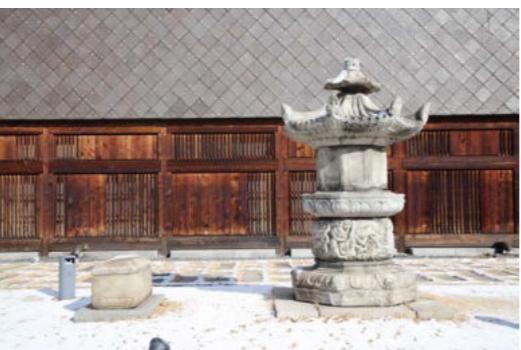
고려 초에 이르면 승탑은 규모가 장중하거나 지붕이 과장되며 기단부의 변형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특히 둔중한 느낌의 지붕은 처마 밑이 그대로 보일 정도로 위로 휘어진 모습을 하고 있어 신라시대의 승탑과 뚜렷이 구별된다. 홍법사 진공대사탑은 이러한 고려 초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승탑 역시 원주의 홍법사지에 있었으나 경복궁을 거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뜰에 있다. 신라 승탑의 기본 양식인 팔각원당형으로 곳곳에 새겨진 화려한 조각이 눈을 호사스럽게 한다. 특히 중대석의 화려한 장식으로 눈길이 맨 먼저 달려간다. 구름과 용으로 면을 가득히 메웠는데 굵고 깊은 곡선의 움직임이 강렬하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과 그 사이를 휘감아 도는 용의 움직임은 왕성한 힘이 느껴질 정도로 역동적이다.

탑신은 팔각 모서리의 기둥마다 꽃무늬를 더해 화려하게 장식하고 앞뒤로 자물쇠가 있는 문을 새겼다. 지붕은 겹처마의 밑이 훤히 보일 정도로 들어 올려 시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듈다. 게다가 둑근 처마 선을 모서리마다 살짝 올리고 높다란 귀꽃을 달아 지붕의 둔중한 무게감을 경쾌한 느낌으로 반전시킨다.

이 승탑과 함께 발견된 석관은 불교식 장례법을 연구하는 데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유품을 경문 등과 함께 봉안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승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유골을 가매장했을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당시 고승의 시신을 화장뿐 아니라 매장했음도 알 수 있다.



염거화상탑 탑신과 옥개석



홍법사 진공대사탑과 석관



진공대사탑 중대석



충법국사탑과 탑비

충주 정토사 홍법국사탑의 특이한 모습이 생소하다. 일반적인 승탑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동그란 공 모양의 탑신이 매우 이례적이다.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활약한 홍법국사의 묘탑으로 국사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와 짹이 되어 나란히 서 있다. 고려 문화의 전성기에는 일반형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승탑이 선보이기도 하는데 이 승탑과 함께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영전사 보제존자 사리탑이 대표적이다.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팔각형 평면을 기본으로 하는 신라 승탑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부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작품으로 비문의 기록에 따라 조성 연대는 고려 현종 8년(1017)으로 보고 있다. 동그란 공 모양의 탑신은 양증맞으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그 당시로는 꽤 파격적인 시도였을 것이다.

두 줄의 선을 가로세로로 교차시켜 묶고 그 교차점에 자물쇠 대신 자그마한 꽃으로 봉했다. 엄중한 경고를 어쩜 이리도 부드럽게 표현했을까? 양옆으로 펴진 둥글넓적한 곡선은 안정감을 준다. 옥개석은 여덟 곳의 모서리마다 귀꽃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없어져 아쉽다. 서까래를 대신해 처마 밑을 깊숙히 파고 꽃무늬와 천의 자락이 휘날리는 비천상을 새겨 놓았다. 전체적으로 장식을 줄여 재료로 쓰인 돌의 자연적인 특성과 무늬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린 석공의 심미안이 대단하다. 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의 조각품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기발한 착상이 그저 놀랍다.

뭣이 중현디!

소리 없는 일갈에 정신이 번쩍 든다. 순간 걸모습에 현혹되어 승탑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부끄러움에 어리석은 욕구를 슬그머니 내려놓는다. 그제야 꽃보다 고운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승탑은 먼저 가신 스승님을 향한 극진한 공경과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지극한 정성 그 자체인 것이다. 욕심을 비우고 그 고운 마음을 담는다. 🌸

계윤애 회원

# 보 제 존 자 나 옹



영전사 보제존자 사리탑

넓디넓은 용산 박물관의 남동쪽 귀퉁이 ‘석조물 공원’이라 이름 붙은 곳에는 국립한글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 사이의 오솔길을 따라 여러 기의 석탑이 늘어서 있다. 첫눈에 확 들어오는 남계원 칠층석탑의 당당한 무게감에 저절로 고개를 들었다 돌아서면, 한 쌍의 갈항사 삼층석탑이 완벽한 비례를 뽐낸다. 각각 고려와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이 탑들을 지나면 기단과 상륜부를 모두 잊어버려 처량해 보이는 홍제원 오층석탑이 나오고, 천수사 오층석탑, 천수사 삼층석탑, 영전사 보제존자 사리탑, 안흥사 오층석탑이 차례차례 다가선다. 이 탑들은 대부분 1915년 경복궁의 전각들을 헐어내고 열린 ‘조선물산공진회’ 때 제자리를 떠나와 아직 귀향하지 못한 신세들이다.

이 탑들 가운데 가장 특이한 존재가 ‘영전사 보제존자 사리탑’이다. 첫째, 나머지는 모두 불탑인데 이것만 스님의 사리탑이다. 그런데 모습은 이중기단에 삼층탑으로 불탑과 똑같다. 이 탑을 세운 사람들의 마음에는 스님이 부처님 벼금가게 대단한 존재로 느껴졌던 걸까? 둘째, 보제존자는

나옹선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데 그의 사리탑은 주지로 있던 양주 회암사와 열반한 장소인 여주 신륵사에도 있다. 그런데 강원도 원주의 영전사라는 절에도 있었단 말인가?

스님의 법명은 혜근(惠勤 또는 豪勤)이다. 속세에 있을 때 이름은 아원혜牙元惠, 호는 나옹懶翁 또는 강월현江月軒, 1371년 공민왕의 왕사가 되면서 받은 이름은 왕사 대조계종사 선교도총섭 근수본지중홍조풍복국우세 보제존자(王師大曹溪宗師禪敎都摠攝勤修本智重興祖風福國祐世普濟尊者), 돌아가신 뒤 받은 시호는 선각禪覺이다.

1320년 경상북도 영덕에서 태어난 혜근은 스물한 살 무렵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겪고 방황하던 중 문경 공덕산 묘적암妙寂庵의 요연선사了然禪師에게 출가하였다. 그 뒤 전국의 이름난 절들을 돌아다니며 정진하다 1344년 양주 천보산 회암사檜巖寺에서 밤이나 낮이나 눕지 않고 앉은 채로 수행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고, 당시 회암사에 머물고 있던 일본 스님 석옹石翁에게 깨달음을 인정받았다.

1347년 원나라 연경燕京으로 건너가 법원사法源寺에서 인도 마가다국의 왕자 출신인 지공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지내다가 1350년부터 평강부平江府 휴휴암休休庵에서 한철을 보내고, 유명한 선승인 자선사慈禪寺의 평산처림平山處林을 찾아 법을 이었다. 이듬해 명주溟州의 보타락 가산補陀洛迦山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육왕사育王寺에서 석가모니상을 예배하였다. 당시 원나라 황제였던 순제順帝는 혜근을 연경의 광제선사廣濟禪寺 주지로 임명하고 금란가사와 비단을 선물로 보냈고 1356년 10월 15일 개당 법회開堂法會를 열었다. 그러나 혜근은 여기 오래 머무르지 않고 주지 자리를 내놓은 뒤 다시 지공을 찾아갔다가 1358년 고려로 돌아왔다. 원나라에 있었던 11년 동안 혜근

스님은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 당대의 선승들을 찾아다니며 많은 게송과 일화를 남겼다.

법원사에 있을 때 일이다. 매화 한 송이 핀 것을 보고 스승 지공이 게송 한 수를읊조린다.

잎새 푸른 매화 한 그루에 한 송이 꽃 피누나  
이 세상 어디에도 그와 비길 건 없네  
과거사도 묻지 않았거늘 장황히 미래사를 말하네  
향기 땅에 이르니 우리들의 주재자(吾帝)가 기쁨 넘치네

나옹이 화답한다.

해마다 매화는 눈(雪) 속에 피었거늘  
별 나비 제 바빠 새로 핀 줄 모르더라  
오늘 하나의 꽃이 가지 끝에 가득하니  
온 세상 다같이 봄이네



나옹 화상 영정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영전사 보제존자 사리탑 출토 사리구

고려로 돌아온 나옹은 오대산 상두암 象頭庵에 은신했지만, 공민왕과 태후의 간곡한 청으로 개경 가까운 해주의 신광사 神光寺에 잠시 머물렀다. 이때 절에 쳐들어온 흥건 적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리친 일화를 남겼다. 1361년부터는 다시 용문산, 원적산, 금강산 등지를 다니며 많은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하다가 회암사의 주지가 되었다.

1371년 공민왕은 스님을 왕사 대조계종사 선교도총섭 근수본지중홍조풍복국우세 보제존자 王師大曹溪宗師禪敎都摠攝勤修本智重興祖風福國祐世普濟尊者에 봉했다. 잠시 송광사에 머물던 스님은 다시 회암사 주지가 되어 절을 중창하고 1376년 4월 15일 문수회 文殊會를 열었는데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즉위한 지 2년밖에 안 된 우왕에게 신진사대부들이 주축이 된 어사대 관리들이 청했다. “회암사는 개경과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사대부 집안의 여자들이 줄을 이어 왕래하므로 모두 가업 家業을 폐할까 염려되니, 나옹 스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옹 스님의 팬들이 오늘날의 ‘아미’들 만큼이나 열성적이었나 보다.

우왕의 명으로 밀성(密城, 밀양) 영원사 垅源寺로 가던 스님은 여주 신륵사에 도착했으나 이미 병이 들어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1376년 5월 15일 여주 신륵사 강월헌에 머물다 입적하였다. 강월헌 아래 바위에서 다비하자 모두 155과의 사리가 나왔으며, 그 앞에 향을 사르고 경배를 올리자 이내 558과로 조개졌다고 한다. 나이 56세, 법립 37세였다.

혜근 스님의 법을 이은 제자가 조선 건국에 힘을 보탠 무학이었다. 이렇게 당대의 스타 스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추모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 곳곳에서 승탑을 만들었다. 일단 스님과 가장 인연이 깊은 회암사에서 1377년 선각왕사 승탑과 비를 건립했는데 이색이 글을 짓고 권중화가 글씨를 썼다. 스님이 열반한 곳인 신륵사에는 1379년 이색이 짓고 한수가 글씨를 쓴 보제존자 석종비를 세웠다. 금강산 정양사에는 1380년 전후에 ‘삼한계조 나옹 탑’을 세웠고 1384년에는 묘향산 안심사에 ‘지공나옹비’를 세웠는데 역시 이색이 글을 지었다. 이외에도 8개 사찰에 나옹의 법복, 법기, 불자, 주장, 좌구 등을 나누어 안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입적 후 12년이 지난 1388년 강원도 원주 영전사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삼층석탑 형식의 사리탑이 생긴 것이다. 지금은 서탑과 동탑이라고 이름 붙은 쌍탑인데 서탑에서 보제존자 탑지석, 은제도금육각당형사리기, 은제원통형사리기, 은제접시, 청자발, 구슬, 황송통보 등이 나왔고, 동탑에서는 청동사리호, 납석제사리호가 나왔다. 이 탑들이 있었던 영전사에 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며, 1912년에 이 탑들을 조사하였던 세키노 타다시 關野貞는 ‘전폐영전사 傳廢令傳寺’로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탑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나란히 서 있다.

사진으로 볼 때는 나머지 하나의 탑이 ‘천수사삼층탑’과 상당히 닮았다. 원주 지역에 있던 천수사라는 절에 대한 기록도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탑을 지공의 사리탑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처음부터 세 개의 탑을 세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불교를 이끈 지공, 나옹, 무학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오빠부대’를 거느렸던 나옹 스님이 훌쩍 떠난 지 어언 650년이 되어 가는 오늘 그의 사리탑은 별 찾는 이 없이 쓸쓸히 서 있다. ☺

길문숙 회원



폐영전사지 삼중탑

# 별나서 더 좋아



보신각 종

2021년 1월 1일. 1953년에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타종 행사 없이 새해를 맞이했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 때문이었다. 그리고 새해와 함께 연일 혹한과 폭설이 이어졌다. 날이 갑자기 풀린 어느 날, 박물관 정원의 보신각 종 앞에 섰다.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매년 전국에 새해의 시작을 알리다가 균열이 발견되어 1985년에 은퇴, 당시 경복궁에 있었던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비각에 보존됐다가 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 할 때 유물 중에 가장 크고 무거웠던 이 종을 마지막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종에 새겨져 있는 명문 덕분에 출생은 확실하다. 세조 14년인 1468년에 당시에 유행하던 중국 종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범종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과는 다르게 생겼다. 이 종을 소유했던 원각사는 불교에 의지했던 세조가 숙부인 효령대군의 제안으로 막대한 관심과 예산을 쏟아 일으킨 대찰이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지하에 있는 중생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종소리가 도성에 울려 퍼질 때 세조의 업보와 업적 그리고 그의 절실한 불심의 이유를 다 아는 당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세조 사후에 다시 억불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명맥만 유지하다가 연산군 10년, 창건 40년 만에 금당이 헐리고 장악원 흥청들이 거기에 자리 잡았다. 얼마 못 가서 연산군은 몰락했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 다시 절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다. 여러 재개발 시도들이 무산되면서 절은 점점 폐허가 되어 무허가 거주자들의 터전이 되었다가



임인식, 보신각 종, 청암아카이브 제공

명종 20년인 1565년 대 화재로 그나마 남아 있던 건물을 마저 스러지고 좋은 방치되었다. 그러다가 광해군 때 왜란으로 불탔던 종각을 중건하면서 종은 115년 만에 새 직장을 찾았다. 오전 4시에 도성 문을 열면서 33번(파루罷漏), 오후 10시에 도성 문을 닫으면서 28번(인정人定)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일이었다. 어떤 이에게는 반가운 소리로 어떤 이에게는 잣걸음을 재촉하는 소리로 백성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이후로 네 번의 화재를 더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임무수행을 하다가 고종 연간에 보신각 종이라는 새 이름도 얻었다.

하지만 종의 기구한 팔자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님을 강렬하게 말해주는 사진이 있다. 6.25 전쟁 때 종군 사진가로 활동했던 임인식 중위는 보신각 폐허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이 종을 찍었다. 처음엔 그냥 불도 아니고 폭격을 맞았는데도 살아남았음에 감탄했다. 산불에 속절없이 녹아내린 낙산사 종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하지만 사진을 뜯어볼수록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울지도 못하고 새로 지은 큰 건물들 사이에서 존재

감마저쪼그라들었다가 이런 일까지 당하고 오늘날에 이른 것을 생각하니 이 종은 우리 부모와 조부모들을 많이닮은 것 같다.

여기엔 보신각 종처럼 내력이 확실한 유물이 있는 반면 어디에서 어쩌다 여기 왔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공터에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불상들이 그렇다. 여기저기 떠돌다가 운 좋게도 기증자의 눈에 띠어 이렇게 박물관에 자리 잡았을 거다. 각각 출신지가 다른 이들은 안내판을 보지 않아도 고려시대 불상인 것을 알겠다.

신라시대 불상의 도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큰 머리와 육계, 짧고 굵은 목에 덜 자비로워 보이는 표정인데, 몸통에 팔을 딱 붙인 어색한 자세에 법의를 입은 몸체 표현은 신라의 것에 비해 멋밋하다. 더 깎아서 성형을 하면 예뻐질 것 같은데 석공은 여기서 멈췄다. 그동안 늘 궁금했었다. 고려시대 불상, 특히 석불들은 왜 그렇게들 생겨서 퇴화했다느니 조형미 떨어진다느니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인지. 발원자들은 정말로 재력이 모자라거나 예쁜 것을 몰라서 이랬을까?

고려시대 석불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도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찾기 힘들었다. 그래도 겨우 입수한 책에서 나름 수긍할 만한 설을 찾아냈다. 불교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큰 산이나 암석을 숭배하던 기존 신앙과 결합된 결과라는 것이다. 매우 솔깃했다. 원래부터 신성하게 여겨지던 돌에 불상을 새겼기 때문에 돌은 최소한으로 깎아내 아끼면서도 육체나 수인 같은 부처의 특징은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거다. 그들의 능력과 신심을 너무 많이 오해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해졌다. 그러면서도 유난히 길쭉하게 생긴 석불은 불상이 되기 전엔 마을 앞에 있던 남근석이나 선돌이 아니었을까 하며 또 마음대로 소설을 써본다.

그래서 여기 이 부처들도 이런 모습이 되었나 보다. 왼쪽에 있는 키가 작고 광배가 있으며 연화대좌 위에서 한 손에 꽃을 든 부처는 미륵불이고 오른쪽에 있는 키가 크고

가슴팍 위 손에 등그런 것을 들고 있는 부처는 약사불이라 한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늘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들에게 약사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을 것 같다. 그리고 불교에서 구세주 역할을 하는 미륵을 갈망하는 신앙은 전쟁이 계속되고 왕조가 바뀌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희망을 갖고픈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았을 것이다. 멋진 외모보다 그들이 약사이고 미륵인 게 더 중요하다.

고려시대 것들 중 불상 못지않게 개성이 강한 것이 석등이다. 그중에 하나를 오래전 박물관내 경천사탑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처음 만났었다. 무심코 시선을 돌렸는데 유리창 밖에 내가 여태까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생긴 거대한 석등이 있었다. 오! 와! 뭐지? 멋있다! 개성 현화사에서 온 석등이었다. 그 석등을 다시 보러 가니 여전히 진재하고 있었지만 뭔가 좀 허전했다. 예전엔 분명 근처에 석



고려 불상

등이 하나 더 있었다. 나주 서성문 안 석등 말이다. 바로 검색을 해보니 2017년에 고향인 나주박물관으로 보내줬다고 했다. 게다가 현화사 석등도 2017년부터 해체 보수작업을 해서 2019년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좋아한다면서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전형적인 석등은 백제에서 시작하여 통일신라로 이어진 팔각형 단면의 석등이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팔각형 석등은 계속 만들었다. 나주로 간 그 석등도 고려 특유의 개성이 가미된 팔각형 석등이었다. 근데 이렇게 별난 석등은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그곳은 광종이 발원했던 논산 관촉사였다. 그리고 현화사는 광종의 조카뻘인 현종이 마치 막장 드라마와도 같은 출생의 비밀과 어린 시절을 통하여 왕이 된 지 9년째 되는 해에 역시 기구한 삶을 살았던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절이다. 왕실 정도는 되는 곳에서 발원해야 이런 갑작스러운 파격도 가능한 것일까? 현재 현화사 터에는 석등과 같이 조성되었던 7층 석탑이 남아 북한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석등은 여러 문화재들이 그랬듯이 일본인 골동품상이 일본으로 반출하려던 것을 조선총독부에서 사들였기에 다행히도 서울에서나마 남아 있게 되었다. 나주 석등처럼 이 석등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올까? 그런 날이 오면 일단은 아쉽겠지만 한편으론 기대된다. 우리가 개성 현화사 터에 가서 7층 석탑과 함께 서 있는 석등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일 테니까.

코로나19로 한창 우울하던 지난해에 젊은 국악인들이 부르는 판소리인 듯 판소리 아닌 노래가 시름을 덜어주었다. 예전엔 크로스오버 장르 자체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종과 불상과 석등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생각이 났다. 그 자체로 충분히 매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이전 시대의 정제된 양식과 비교되어 어렵게 생각되는 것들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나지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기에 그렇게 좋아해 줬을 거란 생각이 든다. 시대는 변하고 아무리 정제되고 아름다운 것도 그것들만 있으면 따분해지니까. 그래서 약간 덜 예쁘더라도 뭔가 파격적이고 별난 것들이 더 좋을 때가 있다. 세상이 답답할수록 더더욱.

서유미 회원



현화사 석등

# 청두와 또 하나의 ‘실크로드’ 이야기

중국의 서남부에 자리한 쓰촨성(四川省)의 중심도시 청두(成都)는 두 개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다. 중원中原지역의 문화가 그 하나이고, 소수민족의 문화가 다른 하나인데, 지도를 잘 살펴보면 청두가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중국 고대 역사의 중심이었던 장안, 즉 지금의 시안(西安)에서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청두로 이어지는데, 그 길은 중원 땅에 난리가 났을 때 왕들이 피난을 가는 길이기도 했다. 『삼국지』에도 자주 등장하는 한중漢中을 거쳐 쓰촨성으로 들어서면 ‘한 사람이 지켜도 수많은 군사를 막아낼 수 있다(一人當關萬人莫開)’는 군사적 요충지 ‘검문관劍門關’이 나온다. 당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이백李白조차도 “촉蜀으로 들어가는 길이 험하기도 하구나!”라며 비명을 질렀던 바로 그 길이다. 일단 그 길로 들어선 후 관문

을 막아버리면 중원에서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장강長江을 끼고 오는 험한 산도밖에 없다. 그 유일한 길이 장안과 바로 이어졌기에, 청두 일대에는 중원문화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청두에 가면 누구나 들르는 ‘무후사武侯祠’에는 제갈량과 유비가 있으며, 벽에 걸려 있는 「출사표出師表」에는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써 내려간 북송의 장군 악비岳飛의 글씨가 남아 있다. 당나라의 시인 두보杜甫가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낸 때가 바로 청두 시절이었다던가. ‘소릉초당’이라는 비석이 서 있는 자그마한 초가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떠 풀(茅草)로 지붕을 만드는 장인이 한 올씩 풀을 엮어 전통 방식대로 만들어 올린 것이다. 초록



검문관



청두의 무후사

이 아름다운 초당 길에서, 나라를 걱정하느라 눈물 마를 날 없었던 두보를 만날 수 있다.

인근에는 강이 내려다보이는 망강루望江樓가 있고, 옆에는 열 살 연하의 원진元稹을 사랑했던 당나라 시인 설도薛濤를 기념하는 공간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가곡 「동심초」의 노랫말은 김억이 설도의 시를 번안해서 만들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라는 그 노래는 설도의 작품 「춘망春望」의 한 구절이다. 물을 길어 꽃잎을 빻아 넣어 빛깔 고운 작은 종이를 만들고, 거기에 시를 써서 주고받았던가. “꽃 피어도 함께 볼 사람 없고, 꽃 져도 함께 슬퍼 할 사람 없다. 그리움 두었던 곳 어디일까, 꽃은 피고, 꽃은 지는데.”라는 노래와 함께 설도의 사랑은 지나가 버렸지만, 설도정薛濤井 옆 대나무 숲에 자리한 설도기념관에서는 여전히 설도를 만날 수 있다.

설도가 청두를 대표하는 두 명의 ‘재녀才女’ 중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탁문군卓文君이다. 중국의 건축물 등에서 자주 눈에 띠는 그림 혹은 부조가 있다. 문을 반쯤 열고 기대어 서서 금琴을 타고 있는 남성을 바라보는 여성의 모습이다. 그 그림에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탁문군이고, 남성은 사마상여司馬相如이다. 사마상여는 한나라



청두의 두보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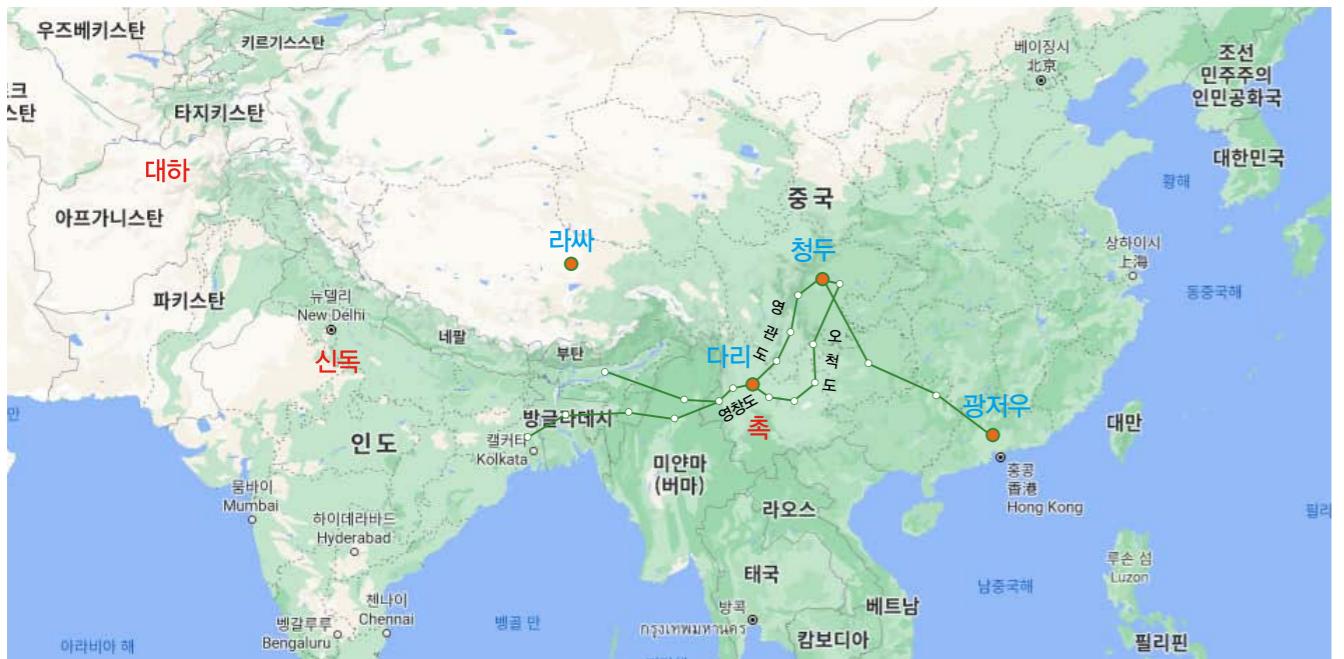
청두의 설도정



설도기념관 안의 설도와 원진 그림



청두 시내의 탁문군과 사마상여 조형물.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봉황



무제 시절을 대표하는 궁정시인이다. 그가 아직 이름을 떨치지 못했을 시절, 임공현 현령인 친구 집에 의탁하고 있었다. 마을의 부자인 탁왕손이 현령과 사마상여를 청해 잔치를 열었는데, 마침 집에 와 있던 탁왕손의 딸 탁문군이 금琴을 타는 사마상여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알았던 듯, 사마상여도 〈봉구황鳳求凰〉이라는 곡조를 연주했다. ‘봉황새의 수컷(봉)이 암컷(황)을 구한다’는 것이니, 에둘러 사랑을 고백한 것이다. 둘은 사랑에 빠졌지만, 부자 아버지가 가난한 사마상여를 받아들여 줄 리 없어, 함께 사마상여의 고향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곳에서 먹고 살 방도가 없으니, 탁문군이 사마상여를 데리고 청두로 돌아와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주막을 열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딸이 주막을 열다니, 자신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결국 사마상여를 받아들여 주었고, 사마상여는 뛰어난 글솜씨로 마침내 무제에게 발탁되어 궁정시인이 되었다. 당

차고 영특했던 탁문군의 사랑 이야기가 청두 시내 곳곳에는 아직도 남아 있다. 거리를 걷다가 금琴을 타는 남자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성을 묘사한 작품을 만나게 된다면, 그건 의심할 바 없이 ‘청두의 재녀’ 탁문군이다.

중원문화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촉’의 중심도시 청두이다.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건립된 쓰촨성박물원이나 청두박물관에 가면 그 흔적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쓰촨성의 청두는 일찍부터 고대 문명이 존재했던 곳이기도 하다. 청두 인근의 광한廣漢 쌍성두이(三星堆) 유적지가 그것을 보여준다. 중원 땅의 황하유역에서 온나라의 도읍지였던 은허殷墟가 발굴되고, 그 곳에서 갑골문이 발견되면서 은허는 황하문명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청두 인근의 쌍성두이에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황하문명 단원론은 깨졌다. 은허 유적지와 같은 시대인 3600년 전에 청두

인근에도 청동기를 주조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싼싱두이박물관에 소장된 거대한 청동 가면이나 독특한 인물상, 4미터가 넘는 청동 나무 등은 이 유적지의 문화적 맥락이 중원이 아니라 멀리 서아시아 지역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은허 유적지의 대표적 유물인 ‘정鼎’과는 완전히 다른 청동 가면은 이 유물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던져주었고, 그 해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황금지팡이라든가 황금 가면 등을 통해 볼 때, 그것이 서아시아 지역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서아시아 지역의 황금 문명이 쓰촨성의 청두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노선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실크로드’의 개척자라 일컬어지는 장건張騫을 다시 소환하게 된다.

장건은 멀리 대하大夏(박트리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온 후 무제에게 말했다. 자신이 대하에 있을 때 ‘공邛’의 ‘죽장竹杖’과 ‘촉포蜀布’를 보았는데, 현지인에게 그것을 어디서 구입했느냐고 물으니, 멀리 동남쪽 신독身毒, 즉 인도에서 가져왔다고 했다는 것이다. ‘공죽’이란 쓰촨의 ‘공’ 지방에서 자라는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이고, ‘촉포’란 비단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추측한다(물론 사서에는 ‘비단’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장건은 ‘촉’(쓰촨)의 물건이 ‘신독’(인도)을 통해 ‘대하’(아프가니스탄)까지 오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여겼고, 그 길로 가면 사막을 거쳐야 하는 길보다 훨씬 가까울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 길로 가보고자 했던 한 무제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네 갈래 길로 사람을 보냈지만, 모두 ‘서남夷西南夷’에 가로막혀 결국 미얀마 쪽으로 내려가지 못했으니까.

장건이 대하에서 봤다는 ‘촉포’가 과연 비단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물론 쓰촨 비단이 지금도 유명하긴 하지만 당시에 비단이 대하까지 오고갔는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 하지만 장건의 이 말을 통해, 청두에서 인도를 통해 아프



청동인면상, 쌍성두이박물관



황금청동가면, 쌍성두이박물관



청동저폐기, 원난성박물관



회원마당



전 김홍도, 평생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가니스탄까지 이어지는 길이 그 시대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추측해볼 수 있다. 그 길은 과거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으나 현재 중국학자들은 그 길을 ‘남방 실크로드’라고 부른다. 물론 그 길에 ‘실크로드’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이 외에 중국의 장안에서 서남쪽으로 향하는, 2천 년 이상 된 또 하나의 오래된 길이 있었다는 점만은 확실해 보인다.

싼싱두이 유적지에서는 많은 바닷조개(海貝)가 출토되었는데, 그것이 인도양에서 온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원난성박물관에도 ‘저폐기貯貝器’라 불리는 정교한 청동유물들이 있다. 고대에 화폐로 쓰였던 바닷조개를 넣어두는 통인데, 뚜껑 위에 새겨진 청동 조각을 통해 2천 여 년 전 원난성 지역에 존재했던 전국滇國의 종교와 습속을 알 수 있다. 싼싱두이 유적지가 있는 청두에서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원난성의 다리(大里)에 이른다. 다리에는 중원 땅에 당나라와 송나라가 있을 때 남조국과 대리국이라는, 5백 년이나 이어진 왕조가 있었다. 지금도 다리 근처에는 큰 장

이 자주 선다. 다리를 지나 북쪽으로 계속 가면 티베트의 라싸로 이어지니, ‘차마고도茶馬古道’와 ‘남방 실크로드’가 교차하는 다리에 일찍부터 큰 장이 섰음은 자명하다. 이곳에서 미얀마로 내려가 인도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까지 갔을 것이다. 다리에는 지금도 인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대흑천신大黑天神에 대한 신앙이 남아 있다. 싼싱두이와 고대의 전국(원난성에 2천 년 전에 존재했던 왕국) 유적지에서 나온 바닷조개는 이 길을 통해 들어온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길은 여러 갈래가 교차하면서 문명을 만들어낸다. 오래된 이 길의 바닷조개에 대한 내용은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도 보인다.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에 의해 원난으로 파견된 뒤 미얀마로 들어갔던 길이 바로 이 노선이었다. 3600년 전, 싼싱두이의 정교한 청동기와 찬란한 황금 유물을 만든 주인공이 과연 누구였는지, 중국에서 인도를 통해 서아시아로 이어지는 이 오래된 길을 통해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 아니겠는가.

김선자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 금자동아 은자동아

지난 해 가을, 손녀를 보았다. 여러 염려를 뒤로하고 작디작은 생명이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요새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가 그저 신통방통한 기쁘고 감사한 날들을 보낸다. 손주란 이리도 예쁜가. 허둥지둥 할미 노릇 하다 문득문득 조선시대 한 학자를 떠올렸다.

손자가 태어나 성장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글로 남긴 묵재默齋 이문건李文健(1494~1567). 명문가였으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몰락해가던 집안에는 불운이 겹쳐 아이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장성한 아들 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다.

“아침에 온이 시를 해석하지 못해 화가 치밀어 긴 나무로 때려 나무가 부러졌다.”

“저녁에 온이 화나게 해서 대나무로 때렸더니 기분이 상했다.”

그가 매를 든 것은 애정과 기대 때문이었으리라. 하지만 매질로 훈육이 되던가, 남 일 같지 않은 500여 년 전의 일화가 눈에 들어온다.

1551년 58세의 그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를 얻는다.

“천리는生生불식生生不息(낳아서 쉼이 없음)이라더니 과연 아직 다하지 않아 어리석은 아들이 자식을 얻어 가풍이 이어졌다... 오늘 저 어린 손자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노년에 내가 아이 크는 모습을 지켜보겠다.”



“노년에 고독하게 거처하는데 오직 손자 아이 노는 것을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습좌習坐, 생치生齒, 포복匍匐 등의 짧은 글을 뒤에 기록하여 애지중지 귀여워하는 마음을 담았다. 아이가 장성하여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 글로나마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 이문건의 손자 육아일기 ‘양아록養兒錄’이 이렇게 탄생하였다.

“손자 아이가 커 가는 것을 보니 내가 늙어가는 것을 잊어버린다.” 손자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진 묵재의 모습이 그려진다. 숙길淑吉(후에 수봉守封으로 개명), 이름에 담은 ‘길하라’는 바람을 저버리고 손자 7세 되던 해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숙길의 양육은 온전히 묵재의 몫이 되었다.

‘양아록’의 마지막은 ‘노옹조노탄老翁躁怒嘆’이다.

“늙은이의 포악함은 진실로 경계해야 할 듯하다.” 손자를 때린 자신을 탓하고 “할아버지와 손자 모두 실망하여 남은 것이 없으니 이 늙은이가 죽은 후에나 그칠 것이다. 아, 눈물이 흐른다.” 품 안을 벗어난 아이와의 갈등이 버거워 원망과 슬픔을 드러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수봉은 어찌 되었나, 행적을 찾아본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활약했다니 할아버지의 정성과 노고를 잊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음에 틀림없다.

양아록은 육아지침서와 성장일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육아를 여성의 일로 치부하였으리라 싶은 짐작과 달리 선비가 양육 일기를 남길 수 있었던 조선 전기의 사회적 분위기와 생활사를 증언한다. 세상이 변해도 크게 다를 것 없는 우리네 삶의 면면들이 마음을 울린다.



손녀를 얻은 후 주변의 아기들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다. 몇 개월일지 가늠해 보고, 어떤 예쁜 짓을 할지 상상해보곤 한다. 그럼 속의 아이들까지도 새롭게 눈에 들어오니 <백동자도百童子圖>가 그중 하나다. <백동자도>는 <곽분양행락도郭粉陽享樂圖>에서 동자들이 독립된 화제로 비중 있게 그려진 경우라고 한다. 곽분양은 중국 역사상 유래가 드물게 정치적, 군사적인 업적이 큰 곽자의(697~781)가 분양군왕汾陽郡王으로 봉해져 붙은 이름이다. 85세로 죽기 전까지 아들 8명, 사위 7명과 자손들이 모두 잘되어 장수와 부귀영화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또한 일일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손자들이 많았다는 다자다손多子多孫의 전형이다. 곽자의가 누린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곽분양행락도>에는 화려한 저택의 너



른 안마당에서 활기차게 노니는 여러 아이들이 등장한다. <백동자도>는 ‘백자도百子圖’ 혹은 ‘백자동도百子童圖’라고도 불렸다. 그려진 아이가 백 명이 아니라, 그 만큼 많아서이다.

중국풍 복식과 머리를 한 채 사방팔방 뛰어노는 아이들이 가득한 <백동자도>에는 여아가 단 한 명도 없다.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인 시절임을 감안해도 부아가 난다. 고루고루 그렸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터인데 말이다.

차치하고 귀여운 아이들이 주인공인 백동자도의 쓰임을 알아본다. 궁중에서는 곽분양행락도를 선호하였고, 민간에서는 크기가 작은 백동자도를 만들어 활용하였다 한다. 궁중의 결혼식인 가례嘉禮 때 백동자도를 설치한 기록도 나온다. 자손이 번성하고 왕실이 영속하기를 염원하였음을 알려준다.

또래들과 어울려 잠자리 잡고, 낮잠 자고, 연못에서 멱 감느라 웃음꽃이 활짝 핀 어린 얼굴들. 기억 속에 선명히 새겨져 있는 친숙한 장면인데, 요즘 아이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다 싶으니 씁쓸하다.

아이의 탄생은 근원적인 둥클함을 불러일으킨다. 아이의 웃음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온기가 되어 몇 곱절의 웃음으로 화답케 한다. 내 아기, 네 아기로 나눌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귀하고 귀한 아이들이다. 손녀의 티 없는 미소에 행복을 느끼며 근래 눈으로 읽기도, 입으로 말하기도 힘든 내용의 아동 관련 사건들을 생각한다.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아이들에 마음이 시리고 저리다.

개성유수였던 시인 오광운(1689~1745)의 곡자시哭子詩를 가져와 본다.

넌 죽고 난 살아서 계절이 바뀌었으니,  
가는 구름, 흐르는 물 한결같이 아득하네.  
땅속에서 새해 온 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세상에 있었다면 열 살이 되었으리.  
음침한 골짜기에 소나무 깔려 햇빛이 없는데,  
양지 바른 언덕엔 얼음 녹아 더욱 슬픈 샘물 흐르네.....  
<죽은 아들의 무덤에 곡을 하다>

생명이 돌아오는 봄이다. 아이의 나이는 멈췄지만 살았다면 몇 살일까 헤아리며 마음자리에 그 이름을 적는다. ↗

문정원 회원



백동자 10폭병풍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 어른대는 좋은 날의 운수

- 도동서원



눈만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프게 ‘눈먼 자들의 도시’를 떠올린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 타인을 바라보는 불편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닫힌 시간의 해지 버튼을 찾는 여행자처럼 새로운 연결고리를 탐색하는 사회적 실험들이 계속된다. 누군가 다른 차원을 향해 비상을 꿈꿀 때, 오래된 시간과 공간으로의 회귀는 나에게 작은 위로 한 자락이다. 마치 섬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만난 소소한 행복, 창문은 활짝 열 수 있는 미세먼지 좋음이랄까.

2018년 봄, 다람쥐를 닮았다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다람재에서 오래 손때 묻은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른쪽엔 낙동강이 흐르고 왼쪽 대니산 자락 경사지에는 도동서원이 보였다. 원경을 통한 조감이 어떤 건축물보다 더 궁금증을 불러냈다.

고려 말 사숙의 형태로 등장한 서원은 조선시대 백운동서원을 시작으로 퇴계 이황을 만나면서 중추 교육 기관과 선현을 추모하는 제향 기관으로 기능이 발전하였다. 가부장 제도와 장자상속제가 정착되면서 서원의 최전성기 17·18세기에 이르면 향촌 교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임진왜란 이후 혈연과 자손을 우선하는 가문주의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경쟁적으로 서원이 난립하게 되었다. 지방민의 착취와 당쟁의 근거지로 전락한 300개의 서원을 영조는 과감히 철거하였고, 흥선대원군에 이르러 권력 기반이 약하



도동서원 전경

고 수탈 행위가 덜한 힘없는 명문 서원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다.

꼬불꼬불 다람재를 내려가니 서원과 시작을 함께한 은행나무가 세월을 이고 지며 땅을 향해 가지를 늘이고 있다. 도동서원은 고려 말 포은 정몽주에서 김종직에게로 이어진 유학의 정통을 계승한 한훤당 김굉필을 향사한 서원이다. 한훤당은 무오년과 갑자년 두 차례 사화로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후학들에 의해 복권되고 문묘에 배향된 동방 5현 중 한 사람이다. ‘소학동자’로 불리는 그를 퇴계는 ‘심성을 수련하며 터득한 윤리도덕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실천하는 오직 한 사람의 ‘도학자’라고 추앙하였다. 원래 1568년 현풍 비슬산 기슭에 쌍계서원으로 건립했으나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다. 1604년 지금의 자리로 옮기고 한훤당의 외종손이며 퇴계와 남명의 제자인 한강 정구가 건립을 주도하였다.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를 담아 1607년 사액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은행나무 정면으로 중건될 때는 없었던 수월루가 맞아준다. 급한 경사지가 낙동강을 가리기에 세우지 않았던



환주문

누각을 서원의 제도대로 뒤늦게 세웠으나 화재로 소실과 복원의 아픔을 겪었다. 돌계단을 올라 수월루 안쪽으로 들어서면 좁고 가파른 돌계단이 강학공간으로 열린 환주문을 소개한다. 네 면이 모아지는 사모지붕의 지붕면은 추녀마루와 만나는 꼭짓점을 절병통으로 마감한다. 사람들이 답답하게 여겼던 이 공간의 좁다란 계단이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계단 옆으로 편 자색 모란과 문지방 중심축을 장식하는 꽃봉오리 석물, 땅을 향해 피어난 가구 부재 꽃 장식이 참 소담하다. 긴장한 유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귀엽고 매력적인 환주문을 고개 숙여 지나면 너른 마당과 강당이 보인다.



중정당



내삼문



중정당

정면 5칸 측면 2칸 주심포 양식의 민흘림기둥이 단아한 중정당은 높다란 기단 위에 앉아 있고, 양옆으로 동재와 서재가 고개 숙인 듯 가지런하다. 마당의 반 정도 되는 지점에 납작한 돌을 깔아 중정당에 이르는 동선을 살리면, 길 끝에서 송곳니가 빠죽 나온 사나운 인상의 돌 거북이 맞이한다. 돌 다듬는 옛 장인의 솜씨는 언제나 입을 다물 수 없는 감동이지만, 중정당 기단의 면석은 특히 상처를 이루만지는 듯 정성스런 예인의 손끝이 느껴진다.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진 돌들을 잘린 귀퉁이까지 한땀 한땀 깁듯이 짜 맞춘 정교함을 보는 즐거움이 색다르다. 스치듯 지나면 그저 허튼 돌 기단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은한 색감에 각양각색의 세월을 살아낸 조화로운 돌의 향연이다. 그래서일까. 새로 보강한 사각형 부재까지 품에 안는다. 재미난 장치처럼 꽃송이 옆에서 오르고 내리는 다람쥐 조각을 새긴 돌에는 손이 절로 나간다.

널찍한 판석을 덮은 기단 윗면, 갑석 아래에서 여의주와 물고기를 물고 있는 용머리 조각들의 잡생김은 주변 면석으로 눈을 트워 준다. 오래오래 눈에 담고 싶은 최고로 아름다운 애착 기단이다. 더불어 중정당 측면에 기단과 같은 방식으로 짜 올린 돌 쪽마루를 보니 애써 누른 욕심이 불뚝 솟아난다. 또 하나의 재미는 온돌방이다. 머름 중방에 팔을 기대고 유생들을 지켜보는 스승님의 모습이 떠오르니 비좁은 문이 의살스럽다. 대청마루 분합문은 문살이 없는 한지여서 신기했는데, 공부하는 유생이 있는 마루가 안이고 방은 밖이라는 생각으로 방 안에서 문살이 보이게 만들었다고 한다. 유생 중심의 표현 방식이 놀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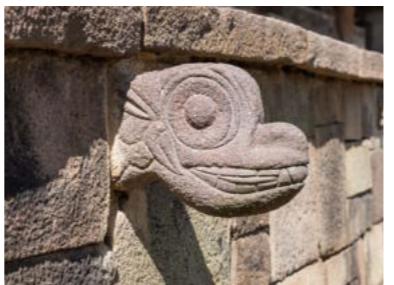
대청마루의 바라지창을 열면 내삼문을 오르는 가파른 계단이 보인다. 은행나무에서부터 계속된 서원의 중심



환주문 꽃 장식



돌거북 장식



기단 장식

축이 사당에 이르는 길이다. 석축을 쌓은 경사면 계단식 정원은 아름다운 담장과 기품 있는 배롱나무, 자색 모란이 어우러져 사대부가의 후원을 닮았다. 도동서원의 담장은 크고 작은 돌과 진흙으로 견고히 쌓고 수막새로 변화 있는 무늬를 낸 축조기법으로, 건축미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서원 어느 곳에서나 품에 안은 듯 다가오는 높고 낮은 담장 선과 엄숙한 사당을 향하는 길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재미난 장식과 문양들이 정겹다. 내삼문을 열면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사당이 보인다. 제향 시가 아니면 출입이 어려운 내부를 운 좋게 볼 수 있었다. 세월을 쌓은 것 같은 판석 기단과 갑석은 물론 잘 보존된 단청까지 점잖아 보이는 건물이다. 사당 안은 측면 들창으로 빛도 잘 들어왔다. 양쪽 벽에는 군자의 절개와 정신을 담은 문인화풍의 산수화 <설로장송雪路長松>과 <강심월일주江心月一舟>가 그려져 있다.

도동서원은 제례와 관련된 장치들도 잘 갖추고 있다. 중정당 서쪽 전사청 굴뚝 옆에는 제수의 품질을 검사하는 생단牲檀이 놓여 있다. 제례 때 ‘상석 위에 솔가지나 기름통을 올려놓고 불을 밝히는’ 조명대 역할을 하는 정료대는 중정당 앞에 있어 도동서원의 제례가 강당에서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사당 앞 석등은 등잔이나 호롱불을 사용하였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느 서원과 달리 제문



기단 장식



내삼문 계단 장식



생단



차

을 태우는 차次(또는 감坎)이다. 사당 동쪽 담장 한 부분을 정사각형으로 파내고 바깥쪽에 수기와를 끼워 굴뚝을 만들어 사용한다.

도동서원은 중용의 규범을 따르고 위계와 서열을 지키는 서원의 원형이라 평한다. 중심축과 대칭구조로 통일성 있는 건물 배치는 경건한 지향으로 읽히지만 결코 지루할 수 없다. 극도의 긴장에 생기를 부르는 아기자기한 장식이 요소요소에서 재치 있는 쉼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은 서원 앞 경관이 수월루로 온통 꽉 차 있음이다. ‘외부적 근엄함, 내부의 개방감’이라는 선택된 서원 공간의 장점이 무색하다. 원래대로 자그마한 환주문이 정문이라면 ‘안에서 바라볼 때 뛰어난 경관을 얻는’ 도동서원만의 품격이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 창문 너머 고층 건물에 가려진 풍경을 더듬는다. 우리도 긴장 따위 벗어내 버리고 하얀 이 드러내며 오순도순 이야기꽃 피우는 날이 곧 오겠지!

정은정 회원

# 한겨울 지나 歲寒圖



김정희. 세한도. 국립중앙박물관

사흘 추우면 나흘은 안심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2021년의 겨울은 며칠이고 이어지는 북극한파가 매섭습니다. 집 밖을 나설 때는 코와 입을 가리느라 얼굴을 잃고, 다섯 사람 이상은 한자리에 모이지도 말 것이며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두 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엄중한 생활 규칙 또한 혹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모여 놀기가 금지된 물리적 사회생활의 빙궁기. 휴대전화 까만 겨울 속 가상공간이 제공하는 피상적인 관계에 지쳐가는 당신은 시련의 겨울을 보내는 중입니다.

나는 세한도입니다. 세한歲寒은 설 전후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뜻합니다. 조선 선비 정신의 정수를 담은 조선 최고의 문인화가 바로 나이며 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로 평가받고 있으니 국보 160호라는 수식도 미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나의 고향은 머나먼 제주도에서도 윈쪽 끝인 대정현이고, 나를 그리고 쓴 분은 정조 10년(1786)에 나시고 철종 7년(1856)에 돌아가신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그때가 유배생활이 시작된 지 5년째 되던 해이니 올해로 내 나이는 177세 되겠습니다. 박물관이란 곳이 함부로 나이 자랑할 데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장무상 망모相忘 낙관

입구에서 체온 검사를 통과한 당신은 휴대전화 속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에 흔적을 남기고 어두운 전시실로 들어왔습니다. 절해고도. 쓸쓸한 섬. 메마른 들풀을 흔드는 제주의 바람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깊은 외로움. 유배인 추사의 정신을 짓누르는 고립감이 마음을 염습합니다.

완당선생이 가화家禍에 휘말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제주도에 유배된 것은 그의 나이 55세 때였습니다. 명문가의 장손으로 일찌감치 시서화에 천재성을 인정받았고 24세 때 아버지를 따라 연경에 다녀온 이후로는 연경 학계의 선비들과도 긴밀히 교류하며 조선 문예계를 이끌던 차였습니다. 그의 삶은 평생 치열하게 사랑한 학문과 예술과 친구들로 충만했습니다. 1840년 초여름 병조참판을 지내던 중에 동지부사로 임명되어 또 한 번의 여행을 앞두고 영광과 기쁨이 절정에 도달한 듯 보였으나, 안동 김문의 모함은 집요했고 해묵은 사화는 그를 한순간에 가장 깊은 나

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위리안치의 명을 받은 그는 국문에 시달린 몸을 이끌고 전주, 해남, 완도를 거쳐 풍랑을 뚫고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선생은 그의 평생지기인 권돈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죄인이 여기에 있은 지 어느덧 3년이 되었는데, 바다와 하늘은 아득하기만 하고 세월은 급급히 흐르기만 하니 내가 비록 면목이 있은들 인간의 면목이겠습니까. 그저 물고기나 자라와 멀지 않은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또 밥을 먹고 옷을 입으며 모든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내가 이 무슨 사람이란 말입니까.”



김정희, 수선화부수水仙花賦 탁본, 국립중앙박물관



추사 김정희 제주 유배지

당신은 어느새 익숙하면서도 잘 모르는 나, 세한도 앞에 와서 걸음을 멈춥니다. 단정한 글씨로 쓰인 歲寒圖라는 제목과 함께 가지 하나만 살아 있는 늙은 소나무와 측백나무들 사이로 윤곽만 그려진 집이 둉그레 앉아 있습니다. 인적 없는 이곳에는 새 한 마리도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은 화면 밖에서 본인의 마음을 정갈한 글씨로 써 내려갔습니다만, 오늘을 사는 당신은 익숙한 문자들을 바라보고 있어도 뜻이 읽히지 않으니 민망합니다. 다시 한 번 한글로 풀어놓은 뜻을 읽고 돌아와 나를 마주합니다.

“공자께서는 ‘한겨울 추운 겨울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사계절 없이 시들지 않는 나무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이전에도 소나무와 측백나무요, 추위가 닥친 후에도 똑같은 소나무와 측백나무인데, 성인께서는 특별히 날씨가 추워진 뒤에 칭찬하셨습니다. 지금 그대는 나에게 귀양 이전이라고 더 해준 것이 없고, 귀양 이후라고 덜 해준 것이 없습니다.”

유배형은 그가 자신의 외부에 지니고 있었던 모든 풍족

한 소유를 앗아갔습니다. 위세 등등했던 가문의 후광도 그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친구도 스러지고, 마음으로 의지하던 부인도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의 주변에 늘 모여들던 사람들 중에 누가 상록수인지 가려지는 진실의 시간이 닥쳤습니다. 허나 철저히 홀로 외롭기를 명하는 유배형마저 그에게서 앗아갈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내면에 꺼지지 않는 학구열이고, 그 빛을 기억하고 지키려는 송백과 같은 벗들이었습니다.

완당선생은 그를 위해 연경에서부터 귀한 책들을 애써 구하여 까마득한 유배지까지 보내주는 제자 우선 이상적에게 한량없는 고마움과 신의를 표현하기 위해 나를 세심하게 구상했습니다. 세한도라는 제목 옆에 받는 사람은 우선이고 완당이 준다고 밝혔습니다. 선생은 일부러 거친 종이를 골랐습니다. 원하는 크기를 얻기 위해 이어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기 없는 마른 봇에 진한 먹물을 묻혀 평생 갈고 닦은 능숙한 필치로 그의 마음 속 겨울을 표현했습니다. 발문은 좋은 종이에 써서 이어 붙였고 종이와 먹으로만 된 화면에 정희正喜, 완당阮堂, 추사秋史, 그리고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는 의미인 장무상 망長母想忘 인장을 찍어 완성했습니다.

당신은 완당선생이 나를 그해 여름에 그렸단 사실을 알고 의아합니다. 웬지 날이 풀리기 전에 세한도를 감상해야 제격일 듯하여 발길을 서두른 당신은 완당선생 앞에서 은유를 모르는 어린애가 된 기분입니다. 하긴, 추사라는 이름 앞에서 당신은 늘 훈장님 앞에 앉은 학동처럼 (서당도 안 가본 사람이) 뭔가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그분을 자세히 알아보면 좀 친근한 사이가 될 수 있을지 당신은 궁금합니다.

완당선생은 역관인 이상적이 그해 가을에도 연행길에 나설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선물로 받고 뛸 듯이 기뻐한 그가 나를 사행길에 데려가서 연경의 지인들에게 선보이리라는 사실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완당선생은 본인의 처지를 알리고 제자의 신의를 칭송하는 작품으로 연경의 벗들에게 말을 건넨 셈이지요.

그해 10월 이상적은 나를 데리고 연경으로 떠났고, 이듬해 정월 친구 오찬이 베푼 환영잔치에서 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장요손을 비롯한 청의 학자 열여섯 사람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시나 문장을 적어 감상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내 몸은 원래보다 네댓 꼽절이나 길어졌습니다. 나의 새 주인 이상적은 훈훈한 댓글이 가득 달린 나를 완당선생께 보여드리며 큰 기쁨과 위로를 선사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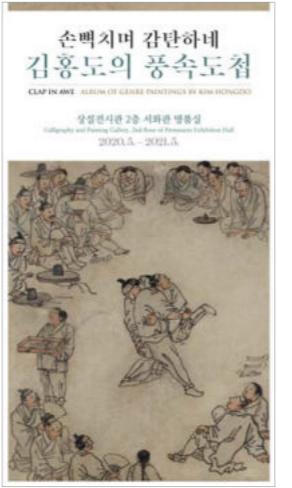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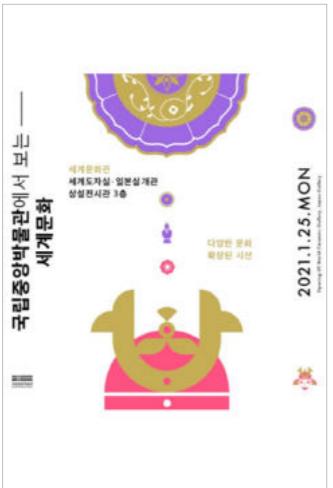
전시실에서 당신은 완당선생의 송백 같은 친구와 제자들에 대해 읽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소치 허련과 막연한 오랜 친구 초의선사는 유배지까지 내려와 몇 달이고 함께 지내 주었습니다. 기약 없이 이어지던 유배생활이 8년 3개월 만에 끝이 나고, 선생이 한강변 용산에 살기 시작한 곤궁한 시절에도, 북청 유배시절에도, 과천 과지초당에서 마지막 4년을 조용히 보내는 동안에도 그는 끊임없이 제자들에 둘러싸여 가르치고, 북돋고, 천거했습니다. 그가 이룩한 위대한 예술세계는 그렇게 여러 스승과 제자와 친구와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다져졌습니다. 당신은 다시 생각에 잠깁니다. 거침없는 천재의 열정에 재갈을 물리고 관용과 관조를 가르친 세한의 시간에 관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어느 미래에 시간여행이 가능해져서 과거로 돌아가 추사를 만날 수 있다면,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 과지초당에서 지내는 칠순 노인께로 가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하겠다고. 그리고 수선화에 대해서 묻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41세일 때 고려자기에 심어 다산선생에게 선물했던 중국 강남에서 들여온 수선화와 제주도 귀양시절에 보던 지천에 널린 수선화에 대해서 더 말씀해주시라고 말입니다.

나는 세한도입니다. 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탄생시킨 수많은 명작 중에서도 그분이 가장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쓰고 그린 독보적인 서화입니다. 당신은 나의 새 주인입니다. 나를 보면 당신은 세한에도 변치 않는 송백의 굳은 의리를 떠올릴 것이며, 가장 어려운 때를 견디고 이겨낼 것입니다.



김정희, 대련 호고유시好古有時, 개인소장

##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 1 특별 및 테마전시

기간	구분	명칭
20. 11. 24. ~ 21. 04. 04.	특별전	한겨울 지나 봄 오듯 – 세한歲寒 평안平安
20. 10. 07. ~ 21. 03. 31.	테마전	한글로 풀어 쓴 역사 이야기
20. 05. 06. ~ 2021. 05. 30.	테마전	손뼉치며 감탄하네: 김홍도의 풍속도첩

### 2 상설전시

기간	구분	명칭
21. 01. 25. ~ 22. 11. 13.	상설전	세계도자실: 도자기에 담긴 동서교류 600년
21. 01. 25. ~	상설전	일본실: 무사 – 문화와 예술의 후원자
19. 12. 16. ~ 21. 11. 07.	상설전	아집트실: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21. 2. 18. ~	상설전	분청사기 백자실

### 3 디지털 실감 영상관

기간	구분	전시관
20. 05. 20. ~	영상전시	영상관 1,2,3 및 경천사 십층석탑



수호신: 중국실

## 거리두기

방위의 수호신도 주문을 보태오  
잠시만 이만큼 거리를 두는 거요  
멈추어도  
봄꽃은 피고 또 지겠지만  
괜찮소  
봄은 또 올 테니까  
우린 담을 찾을 것이오  
언제나 그랬듯이  
잠시 멈추고 우린 오~래 웃게 될 거요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申聖秀 회장을 거쳐 2020년 11월 尹在倫 회장이 취임했다.

會長	尹在倫
副會長	朴殷寬 尹碩敏
常任顧問	申聖秀
當然職	閔丙贊
理事事務局長	金錫洙 金賢銓 南秀淨 朴善正 朴宣注 朴楨原 禹燦奎 俞承熹 李玉卿 鄭溶鎮 趙顯相 崔杜準 許榕秀 洪政旭
監事	金教台 李教祥
事務局長	李在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백억 원, 청룡오십억 원, 백호삼십억 원, 주작십억 원, 현무오억 원, 천마일억 원, 금관오천만 원, 은관삼천만 원, 청자일천만 원, 백자오백만 원, 수정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曉 懽	회원
삼성전자	金承謙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金益煥	한세실업(주) 부회장		
	金芝延	(주)컨셉 대표이사		
	金知爰	한세엠케이(주), (주)한세드림 대표이사		
	金賢銓	히든베이호텔 사장		
	都炯泰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柳智勳	SB Investment 사장		
	朴炳燁	팬택씨앤아이 부회장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朴善正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사장		
	朴英柱	아성다이소 부사장		
	宋秉峻	(주)게임빌·(주)컴투스 대표이사		
	朴禎原	두산메카텍(주) 부회장		
	宋英淑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禹燦奎	학고재 대표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李培昊	MashupAngels 대표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사장		
	李圭植	경신금속(주) 대표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李玉卿	서울옥션 부회장		
	李周成	세아제강 부사장		
	李柱翰	(주)삼익유니버스 대표이사		
	林鍾勳	한미헬스케어(주) 대표이사 사장		
	張善霞	(주)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張仁宇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鄭明勳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鄭在鳳	사우스케이프 회장		
	曹榮晙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崔杜準	(주)동남유화 회장		
	崔正勳	(주)이도 대표이사		
	최철원	MIGHT&MAIN(주) 사장		
	韓惠舟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許允烘	GS건설 사장		
금관회원			청자회원	
姜德壽	전 (주)STX 회장		姜承模	KP그룹 부회장
庚 圓	극락사 주지		高基瑛	(주)금비 부회장
權俊一,具在善	Actium Group 부회장		具東輝	(주)LS 전무
金教台	삼정회계법인 대표			

具本權	LS-Nikko동제련(주)사업전략부문장/상무	孫元洛	(주)경동인베스트 부회장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具本商	LIG 회장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曹榮美	경동소재 대표이사
具本赫	예스코홀딩스 부사장	辛永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曹在顯	(주)가온소사이어티 대표
具璣姪	한성플랜지 이사	慎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趙希卿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鞠賢永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辛春洙	오디컴퍼니주식회사 대표이사	朱信鴻	하나유비에스 대표
權志德	아이에스지주 전무	楊仁集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陣在旭	천일식품(주) 대표
權宅煥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梁汰會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千碩圭	(주)카카오 CFO
金建昊	삼양홀딩스 상무	魚湖善	골드만삭스 상무	崔世勳	회원
金京姬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吳勝敏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崔善默	SK(주) 부회장
金寧慈	(주)예올 명예이사장	吳治勳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崔仁善	회원
金東官	한화 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柳東鉉	인성산업(주) 부사장	崔再源	회원
金東準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俞承熹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崔昌和·鄭惠淑	회원·자원봉사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柳英芝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崔惠玉	회원·자원봉사
金旼洙	(주)삼익악기 스페코 부회장	尹 寬	BRV Capital Management	한국도로공사	SM 엔터테인먼트 DJ/프로듀서
金相潤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尹普鉉	호림박물관 이사	韓碩炫	노루홀딩스 회장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尹勝鉉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韓榮宰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金性完	스무디킹 Global CEO	尹日榮	영안주식회사 대표이사	許正錫	SPC(주) 부사장
金世淵	동일고무밸트(주) 부회장	尹楨善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許辰秀	GS리테일 상무
金永斌	김&장 법률사무소	李甲宰	삼일회계법인 전무	許致烘	(주)화승알앤에이 대표이사 부회장
金榮秀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	李圭鎬	(주)코오롱/코오롱글로벌CSO/자동차부문장	玄明官	호성홍업 회장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起雄	열화당 대표	玄智皓	(주)이노비스 대표이사
金裕錫	김금수 대표이사	李萬圭	에머슨파시픽 대표이사	胡鍾一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金倫壽	지리산 문학관 관장	李美淑	삼표산업	胡昌成	백미당 사업본부장
金恩惠	지암엠주식회사 상무	李善真	목금토갤러리 관장	洪範碩	고려제강 부사장
金仁順	한익한서울아트박물관 관장	李秀卿	(주)프라코 재정본부장 전무	洪碩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金載烈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李承勇	(주)에이티넘파트너스 사장	洪誠杓	회원
金正宙	(주)NXC 대표이사	李英純	한국미술협회 회원	洪元福,金根鎬	BGF 사장
金宗學	서양화가	李鈴子	(주)경농 경영총괄 사장	洪正國	JTBC 상무
金志泰	태아산업(주) 부사장	李容濤	SGC에너지(주) 부사장	洪禎寅	남양유업(주) 상무
金兌炫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李宇成	OCI 사장	洪振碩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金澤辰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李宇鉉	남양유업 전문위원	黃仁奎	(주)케이지에프 전무
金賢剛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李雲卿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潭舒元	광성기업(주) 대표	李胤基	수원대학교 이사장	Mark Tetto	TCK Investment management 공동대표이사
宋園哲	성문출판사 대표	李仁洙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LK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사장
辛炳讚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李宰旭	청주지방법원 판사/수원지방법원 판사	구본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沈宗玄	한국기구박물관 부관장	李瀋宇	정부소송총괄사장	김낙승	노석
梁洪碩	대신증권(주) 사장	李芝衡	롯데쇼핑 총괄사장		석플란트 대표이사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李哲雨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주)에이치케이디 코리아 부사장
尹賢慶	동화약품 상무	李學俊	NAVER 이사회 의장		시몬느 애프씨 대표
李常宰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海珍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박주원
李廷龍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林志鮮	파워맥스 사장		박혜성
丁恩美	블룸앤코 대표	張同鎮	이우일		주식회사 유니드 전무
崔雄善	(주)인팩 대표이사	張升準	장성진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이사
咸泳俊	(주)오뚜기 회장	재미교포	조연주		한솔케미칼 부회장
洪正道	중앙그룹 대표이사 사장	朴俊泳	양贤財團		(주)피아크건설 대표이사
洪進基	마리오아울렛 이사	朴海春	(주)한길봉사회 이사장		차기원
		方正梧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차원희
		裴允植	은산그룹(ES Creators, ES Investor) 대표이사		최성환
		白晋宇	회원		SK네트웍스 사업총괄(COO)
		徐東姪	현대자동차 부회장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한영알코비스 파트너/전무
		薛允碩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BGF 전무
		薛志伊	현대무비엑스 전무		* 2021. 03. 30. 기준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04383, Korea  
전화 (02)2077-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